

# 진안군, 전체 인구 증가세 전환

### 1년 만에 인구 80명 증가... 지역 특성 고려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 성과

출생을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안군의 인구가 감소 흐름을 멈추고 증가로 전환됐다.

진안군은 2025년 12월 12일 기준 인구는 2만4,241명으로, 2024년 12월 말 2만4,161명 대비 80명이 늘었다. 군 단위 지역에서 인구 증가 사례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11월 기준 시·군 인구 변동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군 지역은 전년 대비 200~300명 수준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인접 시·군을 포함한 다수 지역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진안군은 장기간 이어지던 인구감소 국면에서 벗어나 반등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인구 증가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안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지역으로, 올해 11월 기준 출생자 수는 84명인 반면 사망자 수는 374명에 달해 자연감소가 불가피한 여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 2,028명, 전출 1,668명으로 사회적 인구가 362명 순 유입되며 자연 감소분을 상쇄했고, 그 결과 전체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이번 변화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진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대상 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구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단일 정책 효과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축적의 결과로 풀이된다.

진안군은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 일자리, 생활 여건을 연계한 인구 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행복주택 공급, 농촌유학 가구 유입, 귀농·귀촌 지원, 청년 및 신·중년층 정착 기반 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인구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정책 성과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군은 향후에도 주거·일자리·교육·생활 인프라를 연계한 중·장기 인구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훼손 생태계 복원·자연친화적 공원 환경 조성 탄력

### 장수군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은 금강 첫물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50%이내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유도하는 제도다.

장수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4억5천만 원을 활용해 뜬봉샘 국가생태관

광지 내 과거 개간사업으로 조성된 폐과수원 일원을 중심으로 훼손된 산림과 지형을 복원하고 단절된 산림 생태축을 회복할 계획이다.

이울러 군은 폐과수원 복원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세뿔부구뿔 서식지를 확장하고 기존 시설과 지형을 활용해 소생물서식식지, 조류 유인 숲, 학습터 등을 조성해 생태 기능 회복과 환경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국제태권도사관학교·지방소멸대응기금 서면군정질문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무주군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추진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냐며 추진 상황을 묻고 제2국기원 유치 실현가능성에 의견을 제기했다.



황인홍 군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추구했던 기능을 대체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도출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를 통해 사관학교가 지향했던 목표를 실현하겠다"며 "무주군은 제2국기원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며 관계기관 소통 등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무주군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구구조와 정주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과 독창성 있는 사업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주군의 대응전략을 물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은 지역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정 과제"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사업 발굴과 추진전략에 정부 방침을 반영하고 내년에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겠다.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군의 인구정책 개발이 미흡하며 교육, 주거, 육아·돌봄, 일자리, 의료 등을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성을 역설한 이영희 부의장의 질의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생활인구 유입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주형 기본사회 모델 발굴과 가용재원을 고려한 정책규모와 목표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6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2025년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 모였다.

# 모두의 복지공동체 실현 박차

### 무주군 6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가져

무주군 6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2025년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 모였다.

여성단체협의회 축하공연과 기념식,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등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상호 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경임 부위원장, 이상용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회 부위원장, 홍원기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부와 위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정책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유공자 부문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전현석 사회적 기업 다솜건축인테리어(착한가게) 대표는 건축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재능 기부를 실천해 '유공 가게 부문'에서 무주군수상을 수상했다.

김성용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송영곤 부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무주군의회 의장을 받았다. 특강 시간에는 신장철 박사(가온 코칭)가 "나름이 장점이 된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홍진홍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워크숍은 위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자리로, 이를 토대로 협의체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인홍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무주군수)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복지지원 발굴을 비롯한 자원 봉사, 날 운영, △특화사업, △부부 사기 짝기, △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추진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며 혼연함을 나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파쇄·처리 지원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처리 지원사업을 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말까지 무주군 6개 읍·면에서 대상자 50가구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관리소 소속 특수진화대와 직접일자리 근로자로 파쇄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무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기초 상위 180개 시·군·구에 포함된 무주군은 1, 2차 지급률 모두 1위를 달성했으며 신속한 지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했다. 이를 통해 전통 시장 및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진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실적 평가'에서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진안군은 소비쿠폰 지급 초기부터 신속한 행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촘촘한 현장 행정을 펼쳐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소비쿠폰이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사용을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군내 소비 쿠폰은 98.8%라는 높은 소비율을 기록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읍·지사협 협력 '겨울 이불 지원사업' 실시

장수군 장수읍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겨울 이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추영, 민간위원장 김점욱)가 주관해 추진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평소 지역 현장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이 시급한 가구를 직접 추천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장수읍은 대상자 조사와 전달체계를 함께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고 한파가 본격화되기 전 난방



여건이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위기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겨울 이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돌봄도 함께 이뤄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